

‘최소 64조’ 알래스카 LNG프로젝트 참여 ‘득과 실’ 저울질

韓美 정상회담 핵심 의제 떠올라
대통령실, 이달 넷째주 회담시기
조선업계, LNG·쇄빙선 수주 기대
“사업 추진땐 국내 주수 가능성”
알래스카-아시아, 비교적 가까워
일부선 운송선박 수요감소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개최를 목표로 조율되는 가운데 한국의 알래스카 LNG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십조원 규모의 대형 에너지 사업인 만큼 경제성·외교적 파급력 등을 놓고 산업계의 이해득실 계산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삼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사업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 및 리스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해 득과 실을 따지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알래스카의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뉴시스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주요 카드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는 수익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알래스카 LNG사업은 최소 440억달러(약 64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업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공사 과정에 필요한 장비·설비 부문에는 참여 의지가 있으나 한국이 자원 개발에 직접 투자한 전례가 많지

않은 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조선업계 일각에선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LNG선, 쇄빙선 등에서 수주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사업대상지가 북위 51도에서 72도에 걸쳐있고 북극과 인접한 알래스카에서 LNG를 시추하려면 쇄빙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쇄빙 LNG운반선 가격은 일반 LNG운반선 대비 1.5배 가격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더욱이 강관업계의 수혜 기대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고강도 강관 생산이 가능한 종합강관 제조업체인 세아강 등 국내 강관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탄소강 강재를 사용하는 원유나 가스 및 달리 LNG파이프라인에는 스테인리스(STS) 강관을 사용해야 한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는 “알래스카 LNG사업이 추진되면 국내 조선업계가 LNG운반선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LNG개발을 위한 생산 플랜트와 관련해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다만 아직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전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 등 혜택 발생 시점이 확정되어야 어느 정도 규모의 수혜가 예상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래스카 산 가스는 기존 시장에 없던 자원이기에 공급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수송·인프라 수요도 새롭게 생길 것이기에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LNG선 수요가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알래스카가 아시아와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기존보다 적은 수의 운송선박으로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수요처까지 장거리 운송이 필요해 많은 LNG선이 요구됐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종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알래스카 LNG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이라면 미국 자국 기업들이 먼저 나섰을 것이다. 미국 에너지 대기업 엑슨모빌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손을 댄 사례가 있다”라며 “미국이 동맹국에 강제적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쇄빙선이 필수이긴 하지만 한국이 쇄빙선을 많이 만들어본 경험이 없어 수주가 북유럽이나 러시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근로자 어깨근력 보조 ‘엑스블 솔더’ 도입

현대차, 착용로봇 대한항공에 전달
반복적 윗보기 작업 피로·부상 줄여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능력을 올리고 근골격계 부담을 낮추주는 착용로봇이 항공 정비 업무에 본격 도입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대한항공에 자사가 개발 산업용 착용로봇 ‘엑스블 솔더’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엑스블 솔더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전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 착용로봇을 본격 판매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엑스블 솔더는 반복적인 윗보기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어깨 근력을 보조한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부담을 줄여 작업자의 부상 위험을 낮추고, 작업 피로도를 경감해 생산성을 높여준다.



현대차 고양하이테크센터에서 작업자가 ‘엑스블 솔더’를 착용하고 차량 하부를 정비하는 모습.

엑스블 솔더 착용 시 경감되는 어깨 관절 부하와 전·측방 삼각도 활성도는 각각 60%, 30%에 달한다. 또 무동력 토크 생성 구조로 설계돼 가벼울 뿐만 아

니라 별도로 충전할 필요가 없어 유지 및 관리도 용이하다.

대한항공은 항공우주사업본부의 군용기 및 민항기, 무인기, 도심항공교통(UAM), 우주 발사체, 스텔스 항공기 등을 조립·정비하는 현장에 엑스블 솔더를 우선 도입한다. 항공 산업은 높은 기체 규모로 정비 시 윗보기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착용로봇 도입으로 작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대한항공 전달식을 시작으로 사전 계약을 진행한 현대차그룹 계열사, 국내 제조 기업 등 다양한 고객사로 엑스블 솔더를 본격 인도한다. 향후 건설, 조선, 농업 등의 산업군에도 판매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LS마린솔루션, 신안우이 해저케이블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LS마린솔루션이 전라남도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는 ‘신안우이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시공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화오션과 SK이터닉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390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본공사 착공은 2025년, 해저케이블 시공은 2027년에 이루어지며 상업운전은 2029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은 대만전력청 TPC2(295MW) 프로젝트 계약, 해상 해상풍력(1GW)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사업까지 수주하며 시공 역량과 글로벌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는 2024년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성공적인 시공 경험, 한화오션과의 풍력단지 기획 단계부터 이어져 온 긴밀한 협력 등이 이번 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옥 LS마린솔루션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8.2GW 규모로 계획된 신안 해상풍력 벨트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후속 사업 수주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안정성에 경제성 갖춰… 생애 첫 차로 딱!

YG의 CAR TALK 카톡

푸조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STLA 미디엄’ 최초 적용 모델
변속기, 시동버튼 옆으로 옮겨

푸조는 국내 시장에서 뛰어난 제품 완성도와 안전성을 갖춘 브랜드로 유명하다. 특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인 만큼 디자인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과거 국내에서 30·40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운전자와 여성들이 주요 고객층을 형성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와 생애 첫차를 고민하는 소비자

들을 위한 모델이 출시됐다. 바로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제품 완성도와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까지 갖춘 모델이다.

이번 3세대 올 뉴 3008은 스텔란티스의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 ‘STLA 미디엄’이 최초 적용된 모델로 디자인과 공간, 파워트레인, 기술 등 전반적으로 푸조의 혁신을 담아냈다.

첫 인상은 사자 발톱 형상의 주간 주행등으로 이어지는 경계를 없앤 전면부 등은 푸조 고유의 스포티하고 세련된 디자인 감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지난 8일 8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온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GT 트림을 타고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베서더를 출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발해 경기 남양주 수동휴게소 톨게이트를 경유, 가평군 글램트리 리조트까지 왕복 약 110km를 주행했다.

우선 실내는 최신 모델답게 군더더기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센터 콘솔 부분에 있던 변속기를 시동 버튼 옆으로 옮겨 시동과 변속에 일체감을 준다. 다만 일반 변속기와 위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운전자가 적응하기 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5년간 누적 투자액 1조 넘어서

고려아연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600억원을 투자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액도 누적 1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고려아연이 펴낸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약 5666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492억원 대비 12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 이후 작년까지 5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금액은 약 1조 146억원이다. ▲2020년 234억원 ▲2021년 79억원 ▲2022년 3675억원 ▲

2023년 492억원 ▲2024년 5666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용이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호주에 오랜 기간 투자해 왔다. 2018년 124MW 규모로 현지 최대 산업용 태양광 발전소인 ‘썬-메탈스솔라팜’을 건설했으며 2021년에는 자회사 아크에너지를 설립했다.

2022년에는 아크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에퓨론’을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923MW 규모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의 30%를 취득해 발전용량 277MW를 확보하며 부분 가동을 개시했다.

수소 생산과 저장, 수송을 아우르는 그린수소 밸류체인 형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3년 그린수소 생산·충전시설인 ‘SunHQ’를 착공했고 올해 초 공사를 완료하여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